

## BOOKMARK

## 테라로사는 지금

## 족족한 테라로사 쿠키 | 5

Coffee & Cookies, Perfect Pair! 테라로사 베이커리가 많은 이들의 열원이었던 쿠키를 드디어 선보였다. 유기농 밀가루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재료만 섞은 이번 쿠키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뛰어나다. 피스타치오와 크랜베리, 녹자와 화이트 초콜릿, 피칸과 초코칩, 커피와 헤이즐넛 등 재료 매치가 재미있다. 매장에서 판매(신세계 경기점 제외).



## 테라로사 스템프 투어 한창 진행 중

2016 스템프 투어 주제는 '커피 트래블'. 테라로사 매장에서 산지별 드립 커피를 마실 때, 또는 원두를 구입할 때 <브루잉 노트>에 스템프를 찍는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9개 나라, 6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랙을 완성할 때마다 작은 선물이, 모든 트랙을 완주한 뒤에는 서프라이즈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드립 커피를 즐겨 마시다면 도전해보자. 스템프를 빨리 찍고 싶다면, 여럿이서 각기 다른 커피를 주문할 것! 생각보다 트랙이 금방 채워질 것이다. 스템프 투어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코스타리카 COE 6위 도착

티에라 프로메티다(Tierra Prometida), '약속 받은 땅'이라는 뜻의 농장 커피가 올해 코스타리카 COE 대회에서 6위를 수상, 테라로사를 통해 커피 소비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루이 앙리크 포스라는 젊은 농부가 증조부모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이 작은 농장을 물려받아 커피를 재배한다. 농장과 기공시설 모두 1,9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특히 가공시설이 농장 한가운데에 있는 게 정점. 고급 품질 소량 재배되는 커피는 품질 관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번 커피는 카투라 품종이며 '파파야, 멜론, 사탕수수, 꿀, 오렌지' 등 미국적인 열대 과일 품종과 단향이 매력적이다. 10월 충순부터 판매.

대회 점수 89.75 옥션 낙찰가 \$16.35/lb 총 구매액 \$24,871.13 농부 수익금 \$19,794.23

## 심사위원 평가

Aroma/Flavor Honey, Citric, Lemon, Papaya, Melon, Caramel, Sugar cane, Very Sweet Apple, Mandarin, Orange  
Acidity Orange, Green Apple, Sparkling  
Other Syrupy, Delicate, Creamy, Juicy, Consistent, Sweet, Transparent

TERAROSA.COM 10월 킹콩  
엘살바도르 말라카라 B

테라로사닷컴 유저들을 행복하게 하는 커피. 이달의 킹콩, 매월 커피를 한 가지씩 선정하여 500g, 1kg 단위를 특별한 가격에 판매한다. 보통 새로 들어오는 햇커피가 킹콩을 통해 선보인다. 10월 킹콩은 엘살바도르 말라카라B 농장 커피다. 초콜릿 풍미에 고소함과 단맛, 시럽처럼 매끈한 촉감을 겸비하여 늘 고정 팬이 많다. 10월 한 달간 테라로사닷컴에서 500g 2만원, 1kg 3만7천원에 판매한다.

올해 테라로사가 구입한 커피 리스트를 보면 파나마가 보다 다양해졌다. 2014년부터 함께해온 돈 페페 농장에서는 품종별로 4가지를, 파나마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농장 레리다에서 과일 풍미가 좋은 커피 2가지를 들어왔다.

돈 페페 농장은 지난 8월 초 우리에게 농장주 돈 토니의 부고를 전해왔다. 그의 부고로 우리는 한동안 친구를 잃은 슬픔과 40년 이상 한 업계에서 종사한 노장을 잃은 애틋함에 젖어있었다. 품질에 대해 그와 주고받았던 간절한 논쟁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품위 있게 살피던 그 손길을 떠올리며 그의 마지막 커피를 선보인다.



## TERAROSA

[www.terarosa.com](http://www.terarosa.com)

테라로사 뉴스레터 2016년 10~11월 통권 제24호 발행인 김용덕 편집·디자인 테라로사 커피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테라로사 커피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6 (주)학산 테라로사 커피



No.24

2016 Project  
커피는 문화다

손몽주, 선과 면의 은유

오래된 것이 지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테라로사, 고려제강 옛 공장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F1963, 그리고 손몽주 작가의 컨템포러리 아트. 이 만남으로 오래되었지만 진부하지 않고, 현대적이지만 가볍지 않은 테라로사 열한 번째 매장이 탄생했다. 글 이효진(테라로사 뮤지엄)

**T** 테라로사 수영점에 작품 설치를 제안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S** 고려제강의 옛 공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매력이 상당했습니다. 최근 저 역시 과거의 흔적에 현재를 비춰 담아낼 수 있는 설치 공간의 '장소성'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미술관이나 전시 공간이 아닌 영업 공간에 작품을 설치를 한다는 건 망설여졌습니다. 카페라는 본래의 쓰임, 그에 따른 기물이나 고객의 동선 등이 전시 전용 공간에 비하면 제약을 많이 주는 게 사실이니까요. 또 완성된 공간에 작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부 공사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요.



**T** 설치가 끝난 지금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S** 결론적으로는 매우 만족합니다. 현대미술 작품이라는 단편적인 시선에 머물지 않고 카페라는 더 큰 공간을 한층 색다르게 해주는 장치로 편입되어 다양하게, 또 지속적으로 읽힐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장소 특정적인 미술 site-specific art(특정 장소를 위해 창조된 미술작품)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T** 손 작가님 하면 고무밴드 작업이 떠오릅니다. 작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S** 어릴 때 TV에서 제조 선수가 리본을 팔랑팔랑 움직이는 걸 봤는데 그 선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선수들 것보다 긴 걸 만들겠다고 신문지를 얇게 오려붙여 만든 끈을 잡고서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았답니다. 세월이 훌쩍 흐른 지금도 그 끈을 잡고 있는 셈이죠. 2003년부터 고무밴드, 리본, 종이테이프 등 다양한 끈을 이용해서 작업했습니다. 2007년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고무밴드를 갖고 '유동성이 있는 공간'을 연구해왔고요. 이라인 시리즈들은 한마디로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시 공간을 스케치북이나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연필 선으로 벽지에 선을 마구 겹쳐 소묘를 하듯이 고무밴드로 벽과 벽, 바닥과 천장 사이를 수없이 오가면서 면을 만들어냅니다. 그 면은 공간을 나누기도 하고 중첩시키기도 하면서 공간 속에 새로운 공간을 구축합니다.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끈의 탄성에 빛이 더해져 하늘거리는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관객은 그 떨림에 이끌려 한 발짝 한 발짝 작품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0회 정도 설치 작업을 했고, 고무밴드를 평균 10~30km 정도 사용했으니까 총 길이가 900km를 넘겠는데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을 만큼 고무밴드를 사용했네요.

철 와이어 7가닥을 꼬아 직경 3.26mm의 와이어를 만들고 다시 그 와이어 7개를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로즈 골드 빛깔의 활동으로 도금되어 빛을 받으면 산업 재료라기보다는 액세서리 같은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거친 옛 철공장에 부드러움을 입히기 위해 그만이었습니다. 다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변색이 쉬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품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겉면에 PVC를 얇게 입혀 사용했습니다.

**T** 그렇게 해서 작품 <7 FORWARDS WINGS>가 탄생했군요. 설치 과정과 의미가 궁금합니다.

**S** 강철 와이어 작업이 처음이어서 철 재료를 다뤄 본 동료, 선후배 작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 달간 고된 설치 작업을 본인 일처럼 기꺼이 해준 박상덕, 조정환, 방기철, 정승화, 김진은 작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제 작업은 공간에 맞춰 길이를 세심하게 조절해

아래 사진(위부터)  
2009 베이징 MK갤러리  
2015 확장-파장-연장,  
서울대학교미술관  
2014 표류로, 홍티아트센터  
'표류로'는 낙동강 최남단단지  
바다와 만나는 다대포에  
표류해온 나무둥치들을 건져  
공중에 매달았다. 의령의  
나무에게 이것은 또 다른 표류.  
과거의 표류와 함께 '～로'  
향하는 미래의 길을 함께  
담고자 했다.  
오른쪽 사진은 순종주 작가

야 하기 때문에 재단을 뚫딱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작품에 쓰인 와이어는 15,200m, 즉 15km가 넘는 데, 큰 범위만 고속 절삭기로 자르고 나머지는 일일이 수동 커터를 이용했어요. 단면이 4mm가 넘는 강선을 사람 손의 압력으로 자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제작 기간 동안 수동 커터 여러 개가 벼려졌고 작업자들 손이 통통 부어 숟가락 잡기도 힘들었답니다(웃음).

<7 FORWARD WINGS>에서 숫자 7은 와이어로 만든 면의 개수이고, WING은 '날개, 펼친다'라는 뜻입니다. 그간 고무밴드 작업은 벽과 바닥, 천장이어서 새로운 벽을 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공간 특성상 바닥부터 새로운 면을 만들어낸다는 게 어려웠어요. 대신 공간 사이사이를 넘나들면서 길고 짧은, 넓고 좁은 면들을 만들어냈죠. 마치 날갯짓의 은유처럼 곳곳을 스쳐가듯 지나면서 공간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을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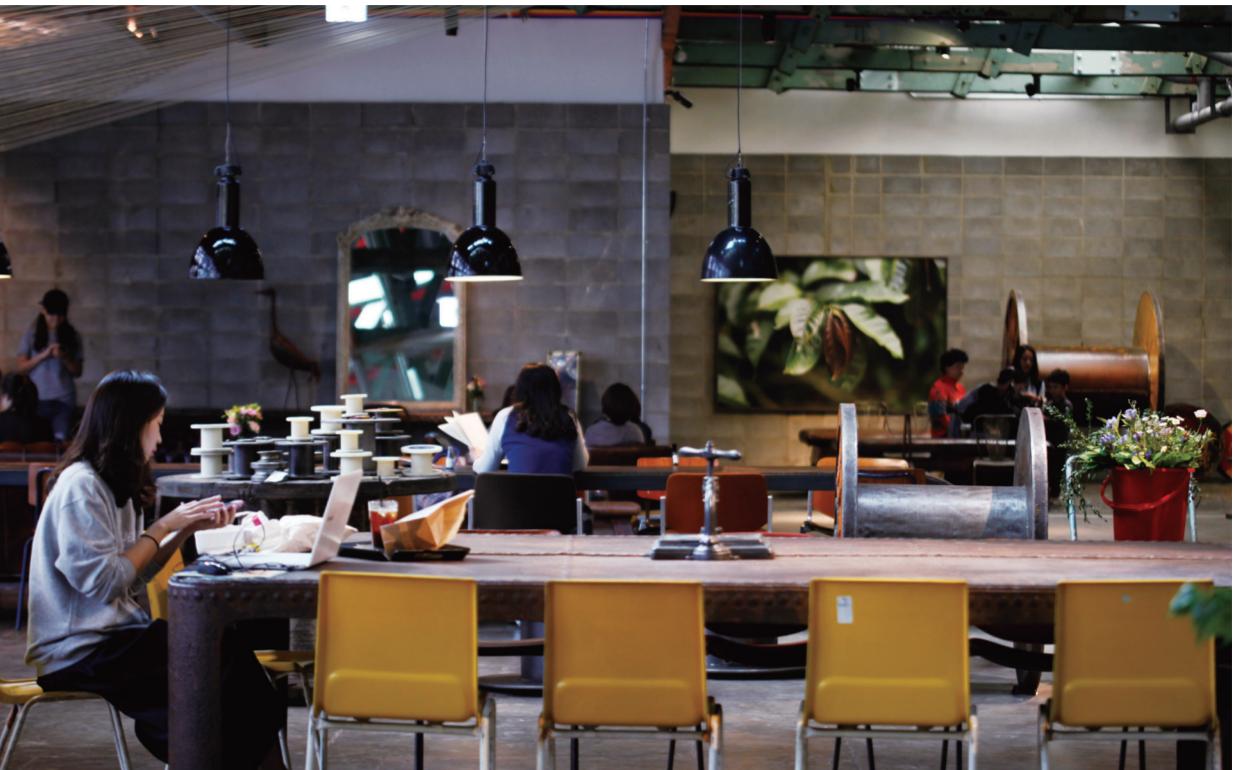
**T** 다음 작품 장소는 강릉 테라로사 뮤지엄입니다. 어떤 작품이 될까요?

**S** 사실 수영점 이전에 뮤지엄 설치 작업을 먼저 의논하고 있었어요. 고무밴드로 커피 플레이버를 공감각적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테라로사 커피의 맛과 향을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직감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테라로사의 의도를 잘 살리고 싶어요. 테라로사가 음악이나 미술, 공간으로 관심을 확장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술만큼 사람의 마음을 즉시 사로잡을 수 있는 것도 흔치 않으니까요. ☕



**T** 이번 작업에는 소재를 바꿔 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S** 최근에는 물성이 강한 소재로 작업 범위를 넓히는 중이에요. 고려제강은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와이어를 생산하는 곳으로 부산에서 인지도도 높고 상장성도 큰 회사입니다. 그러나 1963년 설립된 고려제강 수영공장이라는 장소의 특성, F1963이라는 현 공간에 남은 옛 공간의 흔적, 그리고 테라로사만의 공간 미학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고려제강에서 와이어를 제공해주어 경남 양산, 창원, 정관 등에 흩어져 있는 고려제강 공장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샘플을 검토했어요. 최종 선택한 건 자동차 타이어에 들어가는 스틸 코드 와이어 OTR Code였습니다. 0.35mm의 가느다란 강



##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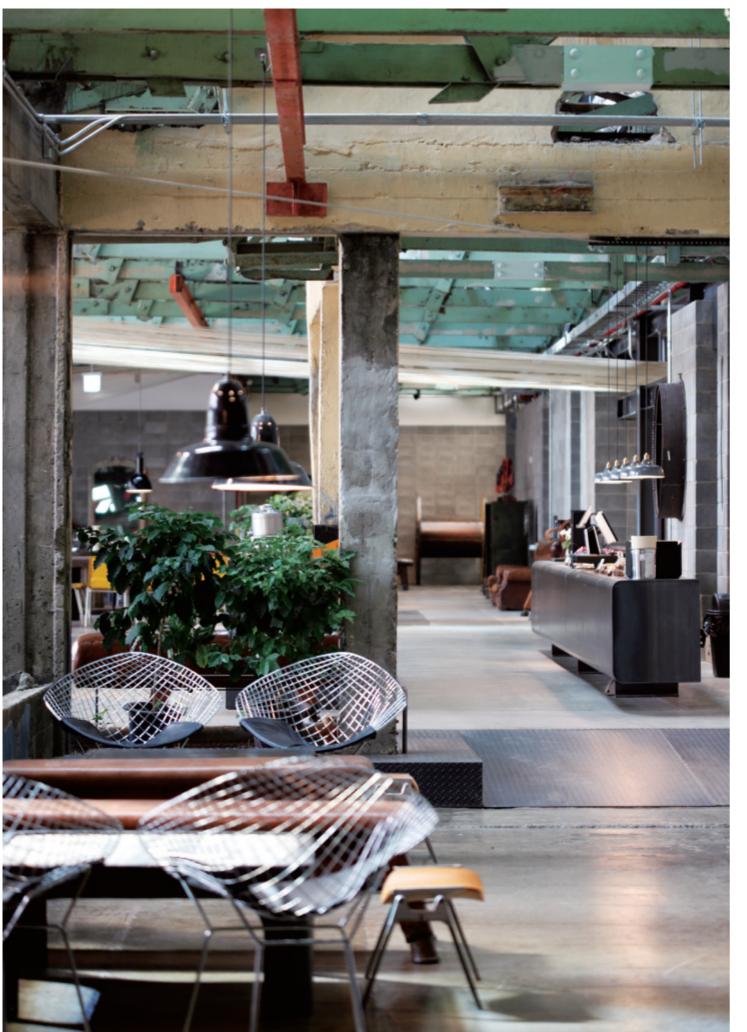
# F1963과 테라로사의 꿈

꿈꾸는 이는 행복하다. 여기 옛 공간을 둘러싼 두 회사의 꿈을 소개한다.

글 이현주(기획)

## F1963, 낮과 밤 모두 생동하는 공간

F1963은 세계적인 와이어 제조업체인 고려제강의 첫 공장인 수영공장을 새롭게 단장한 곳이다. 팩토리의 F에 설립연도인 1963을 붙였다. 규모는 1만650m<sup>2</sup>, 약 3220평이다. 당시 고려제강은 어구에 많이 쓰이던 와이어로프를 일본에서 반제품으로 들여와 완제품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수영공장을 지은 후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F1963에 함께 할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도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라는 팩토리 정신은 주요 기준이 되었다고). 그러나 공장 주변이 주거지로 변해가면서 계속되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사우 수영공장은 2008년 생産을 멈추고 창고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공장에 새로운 운명이 찾아왔다. 당시 부산비엔날레팀이 공장 일부를 빌려 특별전을 열면서 생각지 못한 호평을 받았던 것. 고려제강은 여기에서 수영공장의 미래를 엿보았다. 이후 2016 부산비엔날레 메인 전시장을 제안 받으면서 공장 재생 프로젝트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부산비엔날레 운영감 감독의 구상과 조병수 건축가의 설계로 F1963은 '세 개의 네모'라 불리는 세 개 공간으로 태어났다. 한가운데 중정을 두어 공연과 학술회의 등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둘러싼 내부 겹공간에 테라로사 커피와 제조 맥주 바를, 바깥 겹공간에 전시장을 배치하였다. 전시장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부산비엔날레 '프로젝트 2' 전시가 진행되며, 이후에는 송영철 고려제강 회장의 뜻에 따라 도서관과 서점 등 책이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천천히, 잘 한다'는 그의 경영원칙은 F1963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시가 끝나고 나면 죽은 공간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기에 그는 '천천히 시민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공간, 365 일 낮과 밤 모두 생동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F1963을 천천히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테라로사, 공간의 미학을 담은 커피

"세상에 한 번 존재했던 것이라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에 그것이 좋다고 송두리째 없애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축가 조병수는 F1963 외관에 푸른 물결처럼 보이는 철판만 덧대고 내부의 모습은 대부분 남겼다. 테라로사는 냉그리니 골조가 남은 창고를 넘겨받았다. 50여 년간 철을 다룬 공장답게 거칠고 투박했다. 천장의 모양새도 폐나 복잡했다. 하지만 테라로사 김용덕 대표는 그 모습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70여 년간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기업, 그리고 결국 세계적인 수준을 이뤄낸 기업의 'オリジン'을 공간 안에 그대로 끌어안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이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미학이 될 테니까. 김용덕 대표와 내부 디자인을 맡은 플랜 에이치 팀은 옛 공장의 흔적을 주목했다. 작업장 바닥에 깔렸던 두꺼운 철판, 와이어 감는 데 쓰는 보병이 눈에 들어왔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바닥 철판을 들어냈다. 자르고 잎기를 반복하여 그 철판은 길이 52m의 유선형 바로 새롭게 탄생했다. 보병은 실패처럼 둑글게 생겼는데 손바닥만한 것부터 크게는 직경 1m가 넘는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기계에 걸어 사용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병 옆은 대부분 여러 가지 색이 칠해져 있다. 거친 현장에서 벗겨질 대로 벗겨졌지만 그 색은 그 나름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공장을 벗어난 보병은 테라로사 수영장을 찾는 수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어 가는 아름다운 오브제로 재탄생했다.

수영장에는 테라로사 트레이드마크가 없다. 나무 그리고 붉은 벽돌. 그래도 테라로사스럽다.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이 매장 곳곳에서 당신에게 말을 걸 것이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이 한잔 그 이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테라로사는 오늘도 꿈꾼다. ☕



Info

T everyday 9:00am ~ 9:00pm

M 커피, 음료, 베이커리

A 부산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F1963

P 비엔날레 주차장, 3시간 무료 주차(영수증 지참 시)



#### 테이트 모던 영국, 2000

[www.tate.org.uk](http://www.tate.org.uk)

1994년 테이트 갤러리가 영국 템스 강변에 오랜 기간 방치된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개조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2000년 테이트 모던은 과거의 외형과 현대의 실용적인 내부가 완벽하게 결합된 형태로 재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옛 건물 재생 프로젝트의 암울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오래되고 버려진 공간이 미술관이나 갤러리, 극장, 쇼핑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살아났다.



© Tate, London 2016

## 다시 보는 공간의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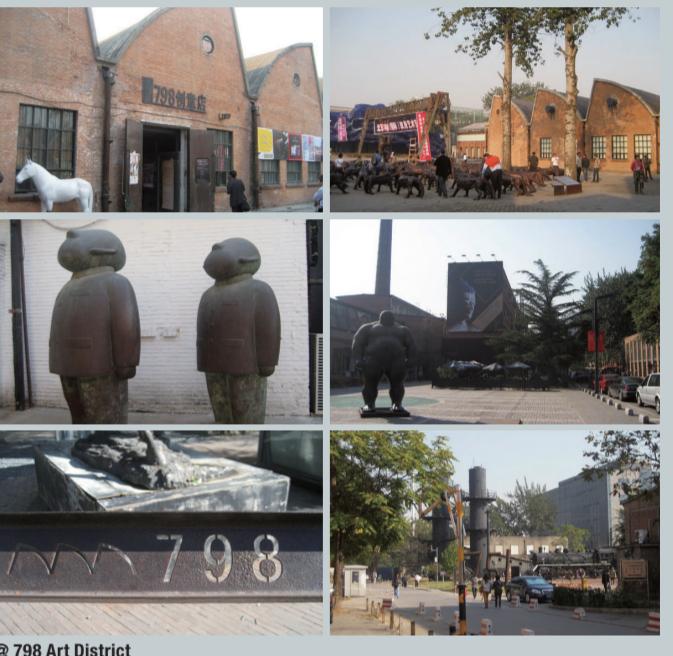
RECYCLED

옛 건물에 숨죽인 과거의 흔적에 숨통이 트이고, 현대의 빠르게 변하는 유행과 문화의 단조로움은 과거를 빌려 한 숨 쉬어 갈 여유를 얻는다. 건물이 되살아나면서 건물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며 현재와 미래를 열어 간다. 글 이효진(테라로사 뮤지엄)

#### 798 예술구 중국, 2002

[www.798district.com](http://www.798district.com)

1980년대부터 뉴욕 소호 등지에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하여 작업실이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예술협의체나 정부, 기업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면서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규모와 범주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베이징의 798 예술구도 그 대표적이다. 이곳은 1950년대 초 소련이 계획 주도한 '718 연합공장지대'였다(798은 그중 798 공장단지를 의미). 당시 중국은 대형공업단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의 계획하에 동독의 셀 세르너 부자에게 설계를 맡겼고, 공장 건축물에는 자연스레 독일 바우하우스와 러시아 구조주의 개념이 스며들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공장단지가 경쟁력을 겨우며 하나둘씩 철수하자 중앙미술학원이 이곳을 임시작업실로 사용하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공간을 찾는 예술가들의 모여들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갤러리들이 입점하고 중국 및 해외 대형 작가들의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798은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예술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상하이의 모간산루 50호, 쿤밍 창고, 청두 랭팅 예술센터, 충칭 천메이 탱크창고 등 798을 모델로 하는 예술 공간들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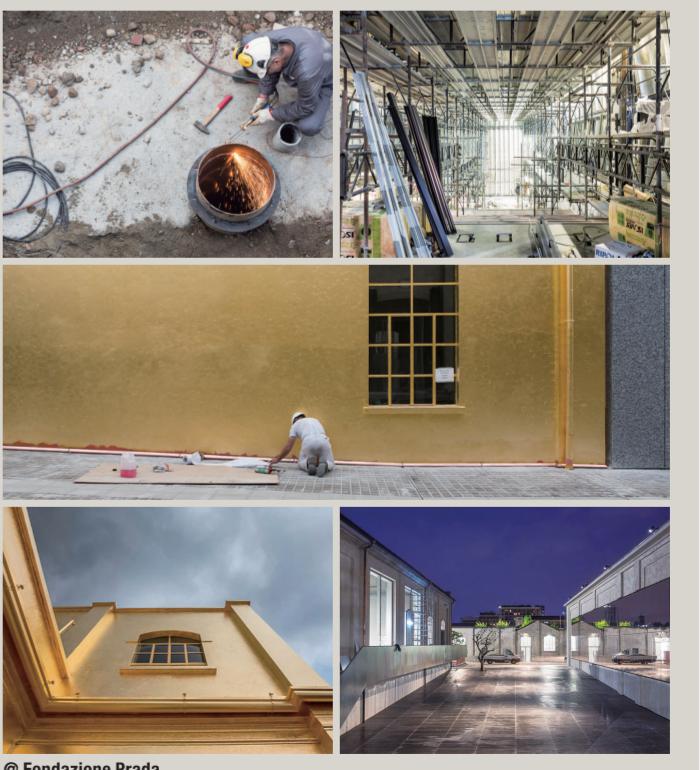


© 798 Art District

#### 프라다 재단 미술관 이탈리아, 2015

[www.fondazioneprada.org](http://www.fondazioneprada.org)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오픈한 프라다 재단 미술관은 1910년대에 지어진 양조장을 개조하고 이에 신축 건물을 덧붙인 형태이다. 리모델링과 건축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 렘 쿠하스는 이렇게 말한다. "프라다 재단 미술관은 보존 프로젝트도, 신축 프로젝트도 아니다. 이 두 개의 건축물은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 늘 분리되어 있다. 단일한 이미지로 완벽하게 엮이거나 둘 중 어느 건물도 지배적일 수 없으며, 단지 서로 다른 조각의 조화일 뿐이다. 새롭고 오래된,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광활하면서도 협소한, 흑과 백의, 열리고 닫힌, 이 모든 대립된 개념이 프라다 재단 미술관을 정의하는 범주가 된다. 이 가운데 만들어지는 디채로운 공간의 변주와 건축의 복합성이 불안정하면서도 끝없이 열린 예술과 건축, 각각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낼 것이다."



© Fondazione Prada



지난 8월 부룬디 앙고지에서  
작은 커피 모임이 열렸다.  
COE 국제 심사관들과  
부룬디 국내 커피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데 집중하였다.  
글 이윤선(그린번 바이어)



컵 오브 엑셀런스 커피 품평 대회(이하 COE)를 운영하는 ACE에서 '부룬디 커피 익스체인지'는 COE를 유치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농부들이 아쉬워하고 있으며, 또 부룬디 국내 커피들의 지속적인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COE를 대신하는 작은 행사를 열겠다는 소식이었다. 국제 심사관들과 부룬디 커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커피에 대한 이해를 넓히자는 것이었다. 국제 심사관 10명과 부룬디 커피 15명으로 팀이 구성된다는 것, 심사관들에게 평가 받고자 하는 농부들의 커피를 모아 약식 대회를 연다는 것, 대회 후 현장에서 경매를 통해 마음에 드는 커피를 구매할 수 있다는 부연 설명도 적혀 있었다.

바로 짐을 꾸렸다. 마침 올해 부룬디 커피 품질과 수확 현황이 궁금하던 터였다. 요즘 부룬디까지 가는 여정은 더 어려워졌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인천-케냐 직항 노선이 없어져 인천-방콕-케냐를 거쳐야 부룬디에 갈 수 있다. 아프리카로 가는 길은 늘 설렘 그 자체인데 이번 부룬디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부룬디는 작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집권당과 신당의 갈등으로 급기야 총기 사고까지 몇 차례 발생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도 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팽배하여 시내 곳곳에 경찰과 군인이 배치되어 있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이다.

국제 심사관들은 부줌부라로 모여 다 같이 앙고지 Ngosi로 이동했다. 앙고지는 부줌부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부룬디를 대표하는 커피 생산 지역이다. 한때 부룬디 커피가 '부룬디 앙고지'라는 이름으로 수출되었던 때도 있었다. 국제 심사관들과 부룬디 커피들이 한데 모여 간단한 소개를 끝내고 바로 커피에 들어갔다. 캠프는 5일간 진행되었고 총 46개 샘플을 맛보았다. 이번 행사가 좋았던 점은 커피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의견 교환에 좀 더 집중했다는 점이다. 사실 COE 대회가 열릴 때마다 국제 심사관들과 국내 심사관들 사이에 의견이 발생하는 건 흔한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국 커피들은 상대적으로 커피를 다양하게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는 때로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디에서 이런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커피에 대한 배경 지식과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커피 평가 기준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약식이었지만 대회가 끝나고 '조용한 경매 Silent Auction'이 진행되었다. 공개 경매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커피에 쓰고 싶은 만큼 가격을 적어 내는 방식이다. 공개 경매처럼 흥분이 오가는 격렬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각자 마음에 드는 커피를 구하기 위해 매우 진지했다. 저 친구는 얼마를 적어 낼까, 이 커피의 가치는 얼마일까, 농부들의 기대는 얼마나 클까. 커피에 값을 매기는 순간은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조심스러워진다.

이번 부룬디 커피 익스체인지는 농부들이 COE 대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연결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산지는 한 해 두 해 COE 대회를 포기하곤 하는데, 이런 단점은 농부들의 품질에 대한 열정에도 단절을 가져온다. 땅에 떨어진 의욕을 다시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다. 이에 작은 대회를 만드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ACE에, 또 여러 나라와 부룬디 곳곳에서 시간을 내어 모인 커피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참, 그래서 커피는 삿냐고? 물론이다. 새해가 되면 깜짝 놀랄 부룬디 커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 WCR REPORT

# 커피 품종 카탈로그 & 2050년 커피 재배지 전망

지난 몇 년간 테라로사 뉴스레터에 자주 등장한 이슈는 '커피 녹병'이다. 2012년부터 중미 지역을 강타했고, 이후 중미는 지금까지 그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세계커피연구소 WCR(World Coffee Research)가 중미 커피 생산자들을 돋기 위해 중미에 특화된 커피 품종 카탈로그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WCR의 기후변화 연구 결과, 아프리카 커피 르네상스 운동 등을 함께 소개한다. 정리 이현주(기획)

## Variety

이번 품종 카탈로그는 전형적인 중남미 품종 10종, 에티오피아 계열 품종 2종, 반복 교배 품종 13종, 교배종 7종, 로부스타 1종 등 33가지 커피 품종을 다루고 있다. 품종별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Quality Potential at High Altitude (>1200m)	Yield Potential	Stature	Optimal Altitude
1200m 이상 고지대에서 자랄 때 품질 전망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릴까? 카투라종 대비 적음, 보통, 카투리와 비슷, 더 많음, 매우 많음	성장 경향이 어떠한가? 키가 큰가, 작은가?	품질과 재배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고도는 어디인가?
매우 낮음, 낮음, 좋음, 매우 좋음, 뛰어남			단, 녹병에 대한 내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Coffee Leaf Rust	Nematodes	Coffee Berry Disease	Year of First Production
커피 녹병에 대한 저항력은? 이 녹병은 헤일리아 곰팡이균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무를 고사시키고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뿌리혹선충, 뿌리썩이선충 등 선충에 대한 저항력은?	커피 열병에 대한 저항력은? 현재 중미 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빙어지만 민약을 대비해서 일어드는 게 좋다.	첫 생산 시기는? 카투라종 대비 빠름, 보통(=카투라), 늦음
저항력 있음, 비교적 잘 견디, 취약함	저항력 있음, 비교적 잘 견디, 취약함	저항력 있음, 비교적 잘 견디, 취약함	저항력 있음, 비교적 잘 견디, 취약함
Nutrition Requirement	Bean Size	Leaf Tip Color	
퇴비, 비료 등 영양제 보조가 얼마나 필요할까?	커피 열매 크기는 어떠한가? 카투라종 대비 적음, 보통, 많음, 평균(=카투라), 큼, 매우 큼	새로 나는 잎 끝의 색깔은?	
매우 많음		그린, 라이트 브론즈, 브론즈, 다크 브론즈	
Ripening of Fruit			
수확기에 커피 열매가 익는 시점은?			
카투라종 대비 빠름, 보통(=카투라), 늦음, 매우 늦음			
Cherry to Green Bean Outturn			
열매 대비 생두 생산량은?			
카투라종 대비 낮음, 보통(=카투라), 높음, 매우 높음			
Planting Density			
이 품종을 심으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까?			
부르봉류(3000~4000a/ha), F1교배종류(4000~5000a/ha), 카투라류(5000~6000a/h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POV 같은 국제 품종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품종인가 아니면 공개 품종인가?			
Breeder			
육종자가 있는 품종이라면 육종자는 누구인가?			
Genetic Group			
라틴 계열(에티오피아, 부르봉에서 파생된), 에티오피아 계열, 반복 교배된 계열, F1 하이브리드 계열 중 어느 계열에 속하는가?			
Parentage			
이 품종의 부모 품종은 무엇인가?			

##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지금 WCR과 국제 열대 농업 센터 CIAT(Internationa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는 커피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라로사도 2012년부터 이 연구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 연구팀은 커피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연구하여 30여 년 뒤인 2050년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라비카 커피 재배에 적합한 땅이 급속히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전망이다.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으나 오히려 재배 가능 지역은 줄고 있어 아라비카 커피 시장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우선 커피 재배지의 생태 환경을 5가지로 나누었다. 덥고 습함, 덥고 건조함, 서늘함, 서늘하고 건조함, 항온. 가장 큰 손실을 입을 지역은 현재 아라비카 생산량이 가장 높은 지역들, 예를 들면,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인도 일부, 나카라과 등 덥고 건조한 지역이다. 2050년이 되면 재배지의 80%가 부적합한 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케냐 등 온도가 일정한 적도 주변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